

새만금 개발 우선협상자에 '에이플러스 컨소시엄'

첨단산업복합단지 2031년 준공

김제=백용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4일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공유수면에 속한 75만평 복합개발용지로 약 2.5㎢ 규모의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등의 복합단지 개발이 주요 골자로 100MW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 구성은 토목건축 공사에 한양을 대표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인 김제시를 비롯한 우미건설, 한백종합건설 등 6개사로 꾸려져있다.

이 6개사의 사업제안은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와 연계한 태양광-풍력 등의 생산 전진기지 구축, 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기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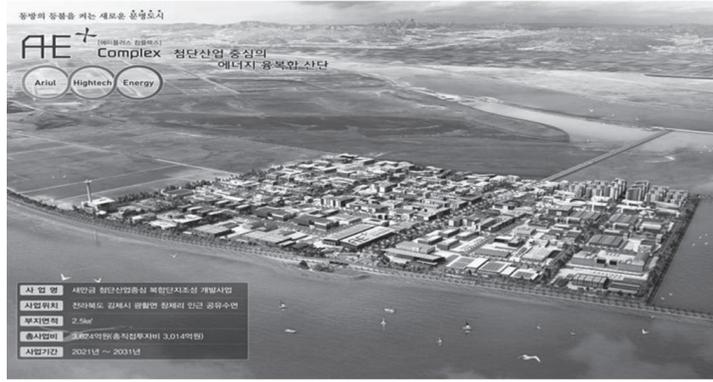
심의 4차산업과 스마트 물류센터 등 미래형 첨단 ICT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연구단지 조성이다.

사업 총 기간은 10년. 2022년부터 203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624억원에 이르며, 이중 용지비와 조성비 등 3,014억원은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그간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을 뚫어 크게 반겼다. 지난해 2월 새만금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제안사업 공모의 사업모델로 '복합단지개발사업' 선정에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기도하다.

지난 5월 사업시행자 공모 때 컨소시엄 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포기율이 좌초될 위기속에 새로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재공모에 응모할 수 있었다.

시는 또 지역업체 활용, 지역 장비·기자재 사용과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사업 후에는 3,9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약 6,4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79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사업에 있어 지자체가 참여하는 첫 내부개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집하겠다며, 조성되는 복합단지에 첨단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

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단지 개발계획과 사업협약체결, 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컨소시엄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다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포커스

마이산,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마이산 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북부 2개 지점에 각각 국비 2억 5천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 군비5억)을 투자해 2년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과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앞으로 군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주요 관광시설, 보행로, 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 개보수와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



하는 등 내년부터 마이산 도립공원에 대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이산을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좋은 기회"라며 "이번 사업으로 모든 국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태 기자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

다만,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고 전했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가 진행됐다.

식당·카페는 22시 운영 제한에서 24시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점종료자외로만 구성 시 실내는 수용용량의 20%,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다. 또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점종료자 등으로 최소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화가 허용된다.

또한 결혼식은 식사여부 관계없이 49명과 접



종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점종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 전체수용인원의 20%, 점종료자외로만 구성 시 30% 가능하되 소모임, 식사, 숙박금지 등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강 시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마지막 고비인 2주동안 협조와 동참"을 부탁했다.

/백용규 기자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설계자 선정 공모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15일부터 '군산 시민문화회관 민간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할 역량 있는 팀을 모집한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방치돼오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인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 위탁추진으로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

이번 시민문화회관 민간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는 세금 부담 경감과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협력형 운영자는 시와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며 운영에 대한 자유도를 보장받되 수익의 일부를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매력적인 공간 기획·운영 능력은 물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팀이어야 한다.

운영자 선정 공모는 일반 민간위탁 사업자 공

모와 달리 정해진 과업 내용과 연간 세급으로 부담되는 위탁료 대신, 공모참가자가 직접 시민문화회관의 새로운 용도와 단계별 사업계획에 걸맞게 사용 면적, 개략적인 시설 구성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자 선정 공모는 특정 민간 주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고, 사회실험 도입 등 일반 입찰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한다.

기본제안서 평가를 통해 추려진 2팀이 경쟁적 대화를 거쳐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26-27일에 예정된 사회실험 기간 동안 제안서 일부 내용을 현장에 구현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최종당선자는 12월 6일에 발표된다.

기타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기본제안요청서를 확인하면 된다.

/백용규 기자

정읍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본격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 임대)을 본격 추진한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밭 농업 기계화 효율을 높이는 작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밭작물인 콩과 양파, 고추, 마늘,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인삼 등 주산지에 집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에 20%를 내구연한 동안 나누어 지불한다.

시는 2018-2020년 사업을 추진해 지역농업과 연구회, 작목반 등 8개소에 27종 59대의 파종과 수확 농기계를 장기 임대했다.

올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4개소에 7종 16대의 농기계 장기 임대를 추진해 어려운 밭작물



에 대해 기계화 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기 임대는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농가의 농 작업 대행까지도 결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으로 밭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진안 성수면, 착한가게 5호점 '냉천막걸리' 현판 전달

진안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지호, 이기호, 이하 협의체)는 15일 '냉천막걸리(대표 조성균)를 찾아 착한가게 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매출액의 일정 부분(3만원 이상)을 매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부여하는 명칭이다.

성수면 착한가게 5호점으로 선정된'냉천막걸

리'는 2019년에 세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3대째 이어와 옛맛을 살리는 전통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고 봉사활동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호 성수면장은 현판 전달식에서 "함께 나누는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랑 나눔 온도담 100°C 울라기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병태 기자

장정복 장수군의원, 벼 병충해 발생 대책 마련 촉구

장수군의회 장정복(사진) 의원은 13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벼 병충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실시했다.

장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올해 벼 도열병 등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발생하는 벼 병충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농가가 인정하는 피해방식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범위와 피해를 산정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병충해의 발생과 피해를 줄



이기 위해 노후화된 담이나 질소함량이 높은 논에 대해 객토와 토양개량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장수군의 병충해 피해는 중만생종 벼의 약 45%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종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집에서 즐기자"

장수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야문화, 장수군 풍경사진 등 다양한 전시와 유튜브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축제는 28일 오전 11시 인기 유튜브 섬마을 훈태와 함께하는 장수 한우 막방을 시작으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축제 개막식 및 장수가야문화제가 펼쳐진다.

둘째날인 29일에는 온라인으로 장수의 명품 한우를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후 빛나는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청춘마크 버스킹 공연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

셋째날에는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장수한우를 시청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시식하며 자유포럼 대화를 나누는 랜선 한우마담이 진행된다. 마지막 31일에는 인기 유튜브 흥사운드가 직접 유튜브에서 장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기종 기자

유진섭 시장,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유진섭(사진) 정읍시장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자치 분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은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모범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의정, 행정, 문화 예술, 사회봉사, 기업발전 등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2018년 7월 민선 7기로 취임한 유진섭 시장은 미래 정읍의 희망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자치행정을 선도하며 정읍 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난해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정읍시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2020년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정읍의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이라는 도시 브레이밍 아래 용산호 주변 활성화 사업과 내장산 자연 휴양림 조성, 내장산 문화관광 개발 등을 추진,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의 초석을 세운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 시장은 "이번 수상은 11만 시민과 1천400여 명의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지 1공구 준공

완주군과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186만8천㎡)가 준공돼 본격적인 기업 입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군에 따르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군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총 부지면적 211만3천㎡에 총사업비 3921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사업이다.

이날 준공 완료된 구역은 산업용지(115만2천㎡)와 기존 주거용지(9만1천㎡)에 해당된다.

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공구 부분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 입주와 분양계약 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일진하이슬루스(주), 에너메버터리슬루스(주) 등 총 13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MOU와 투자인사를 밝힌 기업과의 분양계약까지 체결하면 산업용지 분양률이 70%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공구까지 조성 완료되면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기업환경 조성 과 미니북캠퍼스 및 지원시설의 주거, 문화, 소비 기능 확대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주여건도 크게 향상돼 신안주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 부분 준공으로 본격적인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인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원 노력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재복 기자



장수군, 제5회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

제5회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가 14일 장수군 장계면 동명마을 김동신 의병장 묘역에서 거행됐다.

장계면 김동신 의병장 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에는 장정복 군의회부의장, 추모사업회 회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현관 이광춘 장계면장, 아현관 장정복 부의장, 종현관 최한주 추모사업회 회원 순으로 거행됐다.

김동신 의병장은 1906년 최익현, 민중식과 함께 무주, 순창, 구례 등 호남 일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활약을 펼쳐 '삼남의병대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순국했다.

이후 공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며, 추모사업회는 호국정신을 받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김동신 의병장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김 의병장을 신앙하고 고귀한 정신이 후대에 널리 계승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기종 기자